

꽃밭에서 한끼 식사... 눈이 더 즐거운 미술식당



사파리 그림이 그려진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 무등반점.



청년 예술가 재치가 느껴지는 신신분식 '냄비의 향연'.

'나비아 공동가자' 프로그램... 예술의 거리 식당들 대변신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에 위치한 영흥식당은 올해로 문을 연지 30년이 됐다. 그동안 화가·음악가 등 예술가들의 아트로서 거쳐간 손님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 신식 식당이 생겼음에도 영흥식당은 늘 그 모습이었고 추억을 찾으러 온 손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영흥식당이 떠들썩해졌다. 그동안 영흥식당을 즐겨왔던 단골 화가들이 식당내부를 화사하게 꾸미기 시작했다.

강연균씨부터 이상우 광주미술협회장, 후배 홍정호, 최재영, 문명호, 오인호, 김선미, 성유진이 어우러져 신나게 붓을 놀였다.

'나비아 공동가자'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예술의거리 이색공간-예술동거' 프로그램이다. 영흥식당은 '영흥예술대학'을 주제로 주로 찾았던 화가들이 참여했다. 식당 앞을 지나던 강 화백과 나 회장은 후배들의 작업현장을 보고 "가만 있을 수 없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붓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식당 안은 화사해졌다. 기름때 묻은 노란 메뉴판은 하얀 글씨가 써진 나무판 그림으로 바뀌었고 목란으로 장식했다.

예술가들의 빼놓수 없는 친구 막걸리와 소주는 테이블 옆에 약 2m 크기로 등장했고 직직했던 주방에는 해바라기 등이 그려졌다.

식당주인 임병숙(여·68)씨는 "그전에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그림 때문에 손님들이 더 많아져 고생할까 봐 걱정된다"며 입가에 미소를 띠며 너스레를 떨었다.

영흥식당 뿐 아니다. 동부경찰서 앞 무등반점은 사파리로 변신했다. 사자, 얼룩말, 기린이 웃으며 반긴다. 서양화가 최재영씨 솜씨다. 최씨는 '사파리로 짜장면 배달'을 주제로 식당 전체를 꾸몄다. 테이블 위에는 꽃이 그려져 음식물을 흘리기 미안스러울 정도다. 곳곳에 열대 식물, 앵무새 등이 그려져 식사 재미를 더한다.

예술의거리를 돌아다니며 간단한 오징어튀김이 생각날 때 들르는 신신분식도 새단장했다. 분식하면 라면, 라면하면 양은냄비가 생각나는 데서 착안해 신신분식은 '냄비의 향연'이 주제다. 분식집을 주로 찾는 젊은 작가들이 참여했다. 천장을 따라 배열한 빨강·하양 냄비 작품은 밥을 먹

영흥식당, 2m 소주 그림 손님 반겨
무등반점, 열대식물·앵무새 식사 재미
신신분식, 빨강·하양 냄비 작품 눈길
강향국밥, 꽃·나무·숲으로 내부 꾸며

으면서도 자꾸 고개를 들게 만든다. 한쪽벽에는 김밥과 떡볶이를 의인화한 작품이 그려져 있다. 김밥이 먹성 좋게 입을 크게 벌리고 떡볶이를 삼키려는 모습은 손님에게 '어서 빨리 떡볶이를 주문하라' 메시지처럼 보인다.

7년째 운영 중인 식당주인 용희안(여·55)씨는 "조용히 밥만 먹던 손님들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식당이 더 알려지고 장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망했다.

울금밥으로 입소문 난 강향국밥은 꽃으로 둘러싸였다. '꽃밭에서 한끼 식사'를 주제로 각수봉 화백이 솜씨를 발휘했다. 민화를 주로 그려온 곽 화백은 곳곳에 달, 잉어, 전동오리 등과 함께 버드나무, 국화, 소나무 등을 그렸다.

방마다 그림이 다르다. 나무 그림 옆에 앉으면 숲에 있는 기분이고, 잉어그림 옆에서는 연못 옆 정자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강남구 작가는 구수한 된장국과 맛깔난 김치로 손님들을 맞는 밀락원을 변신시키려 베풀고 있다.

동부경찰서 앞에서 은만들기 공예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인호 작가는 0.3평 갤러리를 만들었다. 갤러리는 고(故) 배경수씨가 30년 이상 운영하던 담배판매점이었다. 최근 배씨가 별세하며 공간이 비자 예술의거리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입구에 A4용지로 써붙인 갤러리 이름에는 조그맣게 '경수'를 써놓아 이웃사촌을 기리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커다란 소주병·막걸리 그림이 손님을 반기는 영흥식당.



각종 꽃 그림이 그려져 꽃밭 식사 느낌이 나는 강향국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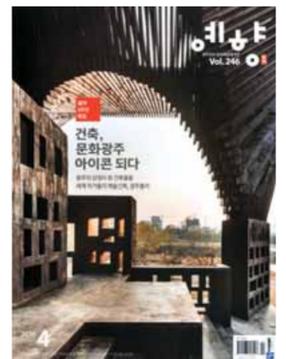
신신분식 한쪽 벽을 차지한 떡볶이·김밥 의인화 그림.

문화광주 아이콘, 건축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인터뷰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에나방 4월호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 문화예술전문 매거진 '에나방'이 복간 3주년을 맞았다. '에나방' 4월호(통권 246호)는 복간 3주년 특집으로 '건축, 문화광주 아이콘 되다'를 주제로 건축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준비했다.

건축물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역사, 예술품이라는 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역사, 예술, 문화의 숨결 살아있는 광주의 상징적 건축물들'에서는 광주 건축을 대표하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해 전통문화관, 의재미술관, 비엔날레 제문헌 등을 살펴보았다. 또 2011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로 시작한 광주의 역사와 인권을 주제로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 풀리'를 소개한다.

'광주·전남의 근대건축에 깃든 이야기'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옥고(玉糶)를 보전했던 광양 '정병욱 가옥'과 '옛 구례 방광초등학교 한옥 교사(校舍)', 한옥과 일본양식이 혼재된 별고 '옛 보성여관', 도심속 한옥호텔 '오가현(五佳軒)' 등 근대 건축물을 찾아보았다. '나무심는 건축인'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을 수상한 자연친화적 단독주택과 아파트 정원을 들여다봤다.

'에나방 초대석'에서는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윤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났다. 교육자로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를 만나 지나온 인생과 한국 음악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이 브랜드다'에서는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경남 하동과 소설가 박경리의 삶과 예술을 조명했다. '남도의 장인들'에서는 전통 나침반을 만드는 윤도장(輪圖匠) 김종대(중요무형문화재 110호) 선생의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스타데이트'의 주인공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 역을 맡은 탤런트 송중기이다. 제대 후 연기 인생 2막을 연 그의 남성적인 매력은 못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남도 미미락(美味樂)'에서는 '천사(1004)의 섬' 신안으로 독자들과의 발길을 이끈다. 그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슬로시티' 증도와 형형색색 툰림이 만개하는 임자도를 비롯해 새봄 미감을 돋구는 다양한 별미를 소개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에나방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復刊 3주년 특집
건축, 문화광주의 아이콘 되다

광주의 상징적 건축물들
문화도시에 펼친 건축적 상상력, 광주풀리
광주·전남의 근대건축에 깃든 이야기

사람이 브랜드다
약양 들녘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불멸의 '토지'
경남 하동 & 소설가 박경리

남도 美味樂
식안
소금꽃 핀 엄정길 따라 느린 걸음

에나방 초대석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윤
"음악은 나이 먹을수록 깊어지는 거죠"
남도의 장인들
정밀한 전통나침반 만드는 윤도장 김종대

문학 화제
그리운 시인들의 초판본
시집들 베스트셀러 주목
"세상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에나방이 만난 이 사람
공감의 팀워크 만드는 KIA타이거즈 코치 이대진
모바일 게임 성공 일군 인터세이브 대표 이갑형

드문드문 본 세상
매화꽃잎 바람에 날리고

노총본의 꿈의 여행
예술과 휴양 '남해'의 행복 이탈리아 마르케
이제는 문화시민이다-스노우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서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보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

스타데이트
"태양의 후예"는 재연기 인생 최고의 대배우예요!
제대 후 '군인 유시진'으로 인기 폭발 송중기